

## 중년기 가정의 세대간 자원이전 : 가정자원관리적 접근

고 선 강(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 순 미(충남대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의 팽창으로 우리사회에서 노후생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미흡한 노인인구의 재정적 자립의 문제,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재취업과 청년실업의 갈등, 젊은 세대의 늘어난 노인부양 부담이 주요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직장생활 기간의 축소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의 독립성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0-60대는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의 이중 부담 속에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계획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약화로 인하여 효에 기초한 부모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은 중년기 자녀에게 있다. 노부모 부양은 단순히 경제적 자원제공 뿐 아니라 치매나 노환에 대한 돌보기, 가사일 등의 생활관리, 주거 공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자녀의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자원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이와 더불어 중년기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상당한 부담으로 남는다. 최근 초혼연령의 상승 등은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는 시기를 지연시키고 이는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확장시켜 중년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에는 사교육비, 대학교 재학기간에는 대학등록금, 취업준비와 결혼을 위한 비용까지 중년기 부모가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가 독립하여 가정을 떠날 때까지(때로는 독립한 후까지도) 지속되며, 이런 상황은 중년기 가정이 스스로를 위한 노후준비와 계획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부모세대, 자녀세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중년기 세대는 흔히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려진다. 현재의 노년기 세대는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전통적 가치관을 기초로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없이 자녀에게 대부분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고 중년의 자녀로부터 노후생활에 대한 부양을 받고 있다. 20-30대 자녀세대는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은 희박하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중년기 세대가 노년기가 되었을 때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은 어렵거나 최소한의 부양만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들은 오히려 현재 20-30대 자녀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듯 중년기 세대는 변화된 욕구구조에 부응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이다.

중년기 가정은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부양과 지원에 대한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노후생활 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년기 가정의 부부가 각각 부모세대에게는 어떤, 어느 정도의 자원이전을 해왔으며 현재 하고 있는가,

자녀세대에게는 어떤, 어느 정도의 자원이전을 해왔으며 현재 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중년 기 가정이 현재 처해있는 생활문제에 대처하고, 미래의 여유 있고 조화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세대간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으로는 개인 및 가정의 자원분배에 관한 선택의 동기를 밝혀주는 동시에 가족과 친족 간의 관계적 측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거시적으로는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 등과 같은 공적이전과 사적이전관의 관계를 규명하고, 세대 등을 통한 부의 재분배, 사회보장정책 등 국가의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II. 세대간 자원이전에 대한 가정자원관리 접근의 필요성

가정의 세대간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국가의 공적이전과의 관계에서 사적이전의 한 부분으로 연구되어 왔다. 경제학적 접근의 연구들은 사적이전의 동기에 대한 부분과 사회보험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서구사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사적이전의 구축효과를 주요한 연구 주제로 삼았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원이전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가정되는데 이타주의와 교환주의이다.

Becker(1991)는 이타주의론(Altruism Theory)을 기초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설명하였다. Becker는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통해 인적, 물질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투자수익이 더 높아 효율적이어서 이타적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배희선, 최현자, 2002). 첫째, 자녀는 자신의 소비만을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므로 이기적인 반면, 부모는 자신의 소비와 자녀의 효용을 통해서 만족을 극대화하므로 이타적이다. 둘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이타적 부모는 수혜자인 자녀의 소득을 증진시키도록 도모하거나 자녀의 소득감소를 방지하는 행동을 취한다. 또한 이타적 부모는 자녀의 소득을 낮추게 되는 행동이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행동이라도 이를 삼갈 뿐 아니라 자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자신의 소득을 낮추는 행동이라도 취하게 된다. 셋째, 매우 이기적인 자녀라도 이타적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자신의 가족의 소득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자녀의 악의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된 자신의 소득 증가분보다 그 행동으로 발생된 가족 소득의 감소가 크면 이기적인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자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복지를 침해한다 해도 이기적인 자녀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 증가를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타적인 가족내에 있는 이기주의자는 비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Becker는 부모를 이타적 가장, 자녀들을 이기적 가족구성원으로 가정하여 보상적 이타주의론을 설명하였다. 보상적 이타주의론은 부모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만 복지증진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즉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에게 이타적 부모가 금융자산의 이전을 통해서 그 자녀의 소비를 촉진시켜주면, 그 자녀의 복지가 증진되고 따라서 부모의 복지감도 증진된다는 것이다(고선강, 2005).

이러한 이타주의론과는 달리 교환이론(Exchange Theory)에서는 기부자가 금융자산의 이전을 이용해서 수혜자로부터 미래에 되돌아 올 자원에 대한 흥정을 한다고 본다. 교환이론에서 상호호혜성은 개인간의 관계에서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다. 돌아올 보상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장기적인 보상일 수도 있다(Bernheim, 1985; Sabatelli & Shehan, 1993, 고선강 2005에서 재인용).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도 그것이 주는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이 더 클 때 성립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부자는 수혜자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높은 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 하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게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자원이전에 관한 이론과 연구들은 주로 부의 재분배와 세습의 차원에서 가계간의 사적 자원이전,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자원의 이전에 관한 것이었으며, 대체로 자원의 흐름의 전제를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두었다(McGarry & Schoeni, 1995, 1997; Koh & MacDonald, 2006). MacDonald(1989)가 지적했던 것처럼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금융자산의 이전은 가장 흔한 사적 이전(private resource transfer)을 의미하였다.

반면 교환이론의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 부모자녀간의 자원이전 흐름을 연구한 경우도 있다(Cox & Rank, 1992; Henretta et al., 1997; MacDonald & Koh, 2003; Koh & MacDonald, 2006). 이들은 자녀의 성장기에 부모가 자녀를 잘 지원했는지, 자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부모가 도움을 주었는지 등이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한 자원이전을 하는 동기가 된다면 상호호혜성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성장한 자녀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보다는 시간을 내어서 가사일을 도와준다거나 돌보기와 같은 인적자원의 이전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Freedman et al., 1991; Marks, 1996).

한편 사회학, 가족학 연구자들은 세대간 자원 이전의 유형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세대간 자원의 이전을 가족 관계적 측면에서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자원 이전은 세대간 관계의 관계의 구조, 세대간의 가족 기능, 관계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대간 지 또는 지지(Intergenerational Support) 또는 세대간 교환(Intergenerational Exchange)으로 개념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세대간 지원을 정서적 지원, 신체적 지원, 경제적 지원으로 분류하는데, 정서적 지원은 표현적 기능을 신체적, 경제적 지원은 도구적 기능을 의미하며, 신체적 지원은 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지원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정병은, 2007). 성인자녀와 부모의 다차원적 유대 관계가 정서적지지, 돈, 선물 등의 금전적지지, 쇼핑, 가사일 돌보기 등의 도구적지지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Marks & Lambert, 1997).

우리나라의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 중 가정자원관리의 관점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배희선(1998)의 연구를 시작으로 김지경·송은경(2004), 김지연(2006), 박미려(2007), 김지경·송현주(2008)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단기간의 동시적인 경제적 자원교류를 연구하였다. 자원이전의 다차원적인 측면의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 연구한 고선강(2008)은 성인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돌보기 등의 도구적 자원 이전에 대해 분석하여, 자원이전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다루었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치매부모라는 연구대상의 특수성의 한계로 자녀세대와 부모자녀세대 간 중 한 방향에서의 자원이전만을 다루어 세대 간 자원이전의 쌍방향성에 근거한 전체적인 자원이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 분석모형구성에 있어서 서구사회의 부모자녀 세대 간의 특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전통적인 부양의식과 책임의식, 자녀에 대한 희생정신 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종합해 보면 경제학적 접근의 연구들은 경제적 자원이전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자원이전의 동기를 규명하는데에 관심을 두거나, 가족관계학적 접근의 연구들은 세대 관계, 친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자원이전을 연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샌드위치 세대로서 중년기 가정에 있어서 생활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경제적 자원은 매우 중요하다. 중년기 가정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이 3세대 간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중년기 가정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미래의 노후생활의 기초를 가늠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다양한 자원의 이전을 함께 연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 또한 현재의 중년기 가정의 생활 모습을 그려보는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정자원관리학이 담당해 왔던 한 가정안(intra)에서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에 의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가 가정 간(inter)의 자원의 이전, 교환에 의한 자원의 재분배에 관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자원관리학적 접근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자원 이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불어 다른 자원들의 이전에도 관심을 가지며, 이들 간의 상호대체성, 보완성, 결합성 등을 연구할 수 있다. 각각의 자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자원이 이전되는 내용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세대간 자원이전 연구의 한계와 제언

중년기 가정의 세대간 자원이전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주제의 특성상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다.

첫째, 세대 간 주고받는 자원의 측정에 관한 문제이다. 경제적 자원, 시간자원, 정서적 자원, 주거 등 다양한 차원의 자원을 어떻게 측정해야 실제 가정생활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원 이전을 잘 포착할 수 있을까? 우선 측정기간의 문제는 패널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다. 대부분의 패널데이터에서는 경제적 자원이전을 최근1년간 또는 지난 1년동안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제적 자원이전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패널데이터의 자료가 축적이 되면 세대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실태는 파악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 국민연금패널, 여성가족패널 등이 세대간 경제적 자원이전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패널데이터에는 패널조사의 조사대상 가구를 벗어나는 비동거 성인자녀, 노부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원이전의 동기를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자원이전에 대한 정보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기간까지의 자원이전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른다. 조사대상자의 회상에 의존하여 자원 이전 행동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측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자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중년기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한 시간의 양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지난 일주일간, 한 달간, 일 년간?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제공한 시간자원 사용 내용은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둘째, 제공자와 수혜자의 자원(resource)과 요구(demand) 조사이다. 자원 이전은 자원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존재해야 성립되며, 제공자와 수혜자가 가진 자원의 정도와 제공자와 수혜자의 자원에 대한 요구가 자원 이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요소로 알려져 있다. 자원 이전을 조사한 패널데이터들의 경우 조사대상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그들의 부모 또는 자녀의 자원과 요구를 알 수

있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쌍방의 정보가 중요함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일방의 정보에 기초하여 자원이전의 동기를 분석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예외적으로 패널에서 분가한 가구를 추적하여 분석한 김지경·송현주(2008)). 연구자가 직접 자료조사를 하는 경우는 쌍방의 자원과 요구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나, 대부분이 조사대상자로부터 얻는 간접적인 정보에 그치게 된다.

셋째, 중년기 가정의 세대간 자원이전 연구에서 3세대 연구는 중요하지만 복잡하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노년의 부모, 초노년의 자녀, 30-40대 성인 손자녀가 같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친족관계는 복잡해지고, 자원이전의 그림도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 부모(배우자부모)-중년부부-자녀의 도식이 부모(배우자부모, 계부모, 배우자계부모)-중년부부-자녀(다양한 자녀)로 변화하고 있어 자원이전 연구에 있어도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가정자원관리학에서 세대 간 자원이전을 연구하는 것은 자원 이전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자원이전 연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중년기 가정의 세대간 자원이전을 연구하는데에 가족과 생활과 자원에 대한 이해를 연구해 온 가정자원관리학이 기여할 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209-229.
- 정병은(2007). 세대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2), 503-518.
- 김지경, 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김지연(2006). 성인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경숙(2002).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고려화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사. 233-277.
- 박미려(2007). 은퇴노인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희선, 최현자(2002).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 대한가정학회지, 40(6), 99-115.
- Becker, 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nheim, B. D. et al.(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045-1076.
- Cox, D. & Rank, M. R.(1992).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 Freedman, V. et al.(1991). Intergenerational transfers : A Question of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1, 640-647.
- Henretta, J. C. et al.(1997). Selection of Children to Provide Care : The Effect of Earlier Parental Transfer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110-119.
- MacDonald, M. M.(1989). Family Background, the Life Cycle, and Inter-household Transfers(NSFH working paper No. 13).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 Marks, N. F. & Lambert, J. D.(1997). Family Caregiving :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NSFH working paper No. 78).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 McGarry, K.(1999).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tended Beque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3, 321-351.
- McGarry, K. & Schoeni, R. F.(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

-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 McGarry, K. & Schoeni, R. F.(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 Results from the Asset Net Worth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Pezzini, L. E. & B. S. Schone(1999). Parental Marital Disrup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 an Analysis of Lone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Demography*, 34, 297-297.
- Riley, M. & J. Riley(1993). Connection : Kin and Cohort. Bengtson, K. L. & W. A. Achenbaccum(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NY : A Gruyter.
- Sabatelli, R. M. & Shehan, C. L.(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P. G. Boss et al.(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 A Contextual Approach*(385-411). NY : Plenum Press.
- Koh, S., & MacDonald, M. (2006). Financial reciprocity and elder care : Interdependent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 420-436.
- MacDonald , M. & Koh, S. (2003). Consistent motives for inter-family transfers: simple altruism.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4(1), 73-98.





## ‘중년기 가정의 세대간 자원이전: 가정자원관리적 접근’에 대한 토론

어 성 연(중앙대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주제입니다. 공적연금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 유럽의 국가들은 공적연금을 통한 사회보장과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이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어왔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the 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Oldest Old 등의 패널조사를 통해서 가족간의 사적이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널조사들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적 측면의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는데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통한 가족관계의 변화,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국 복지개혁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서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 복잡한 역동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을 뿐입니다.

발표문에서 제기하였듯이,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샌드위치세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중년기 성인들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세대 관계를 형성하며 살게 될 것이고, 확대가족의 4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참여의 증가로 인한 양육기능에 대한 지원, 교육의 지원 그리고 부모세대의 수발, 등으로 인하여 각각의 세대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의 한국사회가 핵가족화 됨으로 인하여 세대간의 교류가 단절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여전히 빈번한 가족간의 정서적 교류를 지원하고 도구적 그리고 경제적 교류를 유발합니다. 그러한 교류들은 공적 지원체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구조와 가족생활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관리학적 접근도 중요하나, 학제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경제적 자원, 정서적 자원, 주거, 교육,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정생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또한 발표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원의 이전의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부분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연구방법론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의 연구는 물론이고 외국의 연구들 역시 패널데이터의 이용 등을 통한 양적인 접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족의 역동성이나 복잡한 생활에 대한 설명을 위한 양질의 자료는 장기간의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한 접근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설계부분에 방법론적인 통합을 시도하는 것 역시 향후 연구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노력들은 발표문에서 제시된 연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시대를 우리사회가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